

여수시, 찰옥수수 ‘황금흑찰’ 지역 특화작물 육성

국내 최초 색소 복합 옥수수 화양면 7.4ha 재배단지 조성 재배농가 40명 기술교육 병행 신기술 보급 농가 소득화 목표

여수시가 신품종 찰옥수수인 ‘황금흑찰’을 지역 특화작물로 육성한다. 국내 최초 색소 복합발현 찰옥수수로 화양면에

7.4ha규모 재배단지를 조성한다. 시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에 주력해 농가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황금흑찰’은 알곡에 기능성 성분인 안토시아닌(검정색), 카로티노이드(노란색) 색소가 동시에 발현되는 찰옥수수다. 이삭 끝달림률이 98%로 상품성이 우수하며, 쓰러짐에

강해 농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여수시는 올해 ‘기능성 컬러찰옥수수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본격적인 신품종 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특화작목을 육성을 목표로 옥수수 주산지인 화양면에 7.4ha 규모의 황금흑찰 옥수수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4일에는 화양면에서 옥수수 재

배농가 40명을 대상으로 ‘황금흑찰’ 신품종 옥수수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품종 찰옥수수 ‘황금흑찰’의 안정적인 보급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국립식량과학원 배환희 연구사는 신품종의 특성과 핵심 재배기술을 소개하며 “황금흑찰은 수확시기

가 중요하다”며 “4월 말 수염이 나온 후 15일쯤 노란색이 발현하고, 3일이 더 지나면 검정색이 발현되므로 수확 시기는 대략 17~20일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시장에서 신품종의 도입은 필수적이다”며 “지속적인 신기술 보급과 교육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이순신도서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전남 1위

1일 평균 2000여 명 방문

여수시 이순신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한 ‘2024년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전남도 48개 공공도서관 중 1위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는 매년 전국 약 1200개, 전남도 4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7개 항목 12개 지표에 따라 전년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도서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순신도서관은 2019년 개관해 약 11만권의 장서를 보유 1일 평균 2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청년 도서관입비 지

원, 4차 산업 교육, 북스타트 꾸러미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이야기가 있는 코딩, 전남도 올해의 책 찾아가는 작가 강연, 찾아가는 지역작가 문화 강좌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박삼숙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실적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앞장선 직원들과 지역민들의 호응으로 함께 이뤄낸 결과이다”며 “책 읽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일상 속 즐겨 찾는 지식과 지혜가 샘솟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아침편지’ 고도원 작가 초청 시민교양 강좌

오늘 여수문화홀

여수시는 30일 오후 3시 여수문화홀에서 ‘5월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5월 아카데미에는 ‘고도원의 아침편지’ 저자인 고도원(사진) 작가가 강사로 나선다.

고도원 작가는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담당 비서관으로 5년간 활동했으며, 현재는 ‘고도원의 아침편지’의 주인장이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고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나를 살아가

게하는 정신’이라는 주제로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거쳐 아침편지 주인공이 되기까지, 그리고 삶의 고점과 저점에서 본인이 깨우친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아카데미 시민교양강좌는 매월 1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강연을 듣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사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립국악단, 내일 제44회 정기연주회

여수시가 31일 오후 7시30분 이순신광장에서 ‘제44회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꿈꾸는 바다 꿈꾸는 섬’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순용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국악단원 34명과 왕버나놀이 등 총 44명이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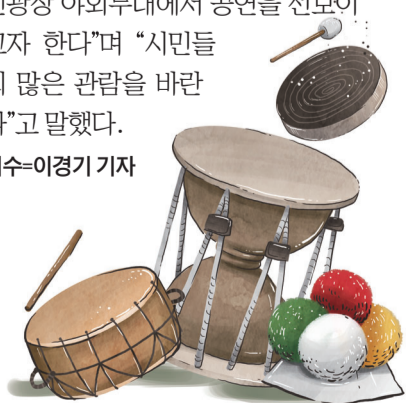
이날 시립국악단은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을 바탕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듬북 합주’를 시작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줄타기’, ‘판굿과 버나놀이’ 등을 통해 우리 농악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을 원곡으로 작곡한 ‘남도아리랑’, 뱃사람들의 고달픈과 적막한 바다 풍경을 표현한 ‘남도뱃노래’와 타악의 가락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품인 ‘버꾸춤’도 함께 선보인

다. 공연은 야외 이순신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 여수세계유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사는 이들의 삶을 예술로 표현하는 공연을 바다가 보이는 이순신광장 야외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8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중앙동지사협,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여수시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생욱, 민간위원장 홍진석)가 지난 28일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세대에 ‘情을 잇고, 幸福을 짓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

29일 여수시에 따르면 대상 가구는 기

초생활보장 수급 독거가구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주변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도움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은 직접 찾아가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 이번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공무원 등 10여 명은 아침 일찍부터 쓰레기 수거를 비롯해 집안 내부를 청소하고 도배와 장판을 교체했다.

홍진석 민간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에 집에서라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적극적으로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5개 만별 핵심사업 제시 여수발전 백년대계 초석

여수 발전 100년 대계 완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시는 이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만 르네상스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선거공약으로 과거 화려했던 수산업의 부흥과 재도약으로 여수만의 부흥을 꾀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용역은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5개 만의 보전과 균형개발을 목표로, 여수의 새로운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담았다.

앞서 시는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용역에 착수, 시민설문조사와 여수만 르네상스 공모전, 시민참여연구단 운영, 각종 보고회를 거쳤다.



여수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 제공

이날 용역사인 ㈜글로벌앤로컬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는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해양관광 허브 미항여수’라는 미래비전으로 여수시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특화해서 5개 만별 전략목표 및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장수만 국가·세계지질공원 추진 △가막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여수해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광양만 수소도시 지정 등 5개 만별 공식인증 추진과 23개 전략사업 61개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용역은 여수발전 100년 대계 완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에 따라 잘 추진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